

국회 정상화 점점 ‘난항’...5월국회 불투명

민주·한국,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 놓고 대립 여전

오신환 “거대 양당 한발씩 양보해야 진전 있을 것”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사과나 유감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철회가 먼저’라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점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었다”며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경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를 마비시켜 정부·여당의 경제회복 노력에 발목잡기를 일삼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경 시정연설(27일), 상임위원장 교체 등을 위한 본회의(30일) 등의 시간표로 5월 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당과의 대립은 더욱 또렷해졌다.

여기에 더해 ‘시간에 쫓겨 원칙을 저버린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의총을 통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이

협상에서 ‘밀지는 장사’를 해서까지 5월 국회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과 원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의 ‘투트랙 투쟁’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에 고삐를 죄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경론’이 힘을 얻은 민주당의 의총 결과 등에 관해 일제 언급을 삼가고 대외 공세에만 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의 ‘버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도 총경이 등장해 모든 수사가 유아무야 되는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윤 총경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며 백기투항을 권유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겠느냐”며 “한국당도 할 만큼 했으니 상대가 받아들일 리 없는 제안을 거두고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추진을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의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논의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추진동력 확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업 추진 탄력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제14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이날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모인 가운데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법·제도적 지원, 행정적 지원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교통·교

육·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힘을 받게 됐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며 “완성차공장 사업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빙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이를 위해 정규직 1천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광주형 일자리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연대기자

주승용 ‘오염물질 농도 조작’ 근절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은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배출농도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같이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김경진 ‘지역 과학인재 육성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갑)은 23일 그동안 4개 과학기술원 간의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과학기술원 부설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원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총 3건으로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를 설



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과학기술원의 교수가 직접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원 간의 형평성 제고와 고등학교·대학교 간 연계 교육을 통한 과학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자치분권위,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장 임성진)는 2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을 논

의한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의 3개 핵심법안이 법제화돼 올해가 자치분권 르네상스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한-불 공동 균형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프랑스의 국토평등위원회(위원장 세르주 모르방 Serge MORVAN, 이하 CGET)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프랑스 균형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균형위-CGET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문재인정부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5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언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프랑스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개최사를 통해 “문재인정부 2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이 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오천경매

투자에 관한 모든 상담
010-3605-5000

임 야 단독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

경매투자자

금매전문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썬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오 천 경 매

010-3605-5000